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개골창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5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1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개골창'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수채 물이 흐르는 작은 도랑.

개골창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개골창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기골창 사전 표기 요약	—	—	—	—	●→	●→
개골창 사전 표기 요약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2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기골창
  19세기20세기
- 개골창
  19세기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2종

기골창, 개골창

개골창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개골창’의 옛말인 ‘ᄀᆡ골창’은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ᄀᆡ골창’은 개울을 뜻하는 ‘ᄀᆡ골’과 ‘창’이 결합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때의 ‘창’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소리와 발음의 특징

18세기 이후 나타난 제1음절의 ‘ㆍ’가 ‘ㅏ’로 변하는 현상에 따라 ‘ㆍㅣ’도 ‘ㅐ’로 변하면서 19세기에 ‘개골창’으로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개골창

전체 용례 5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ᄀᆡ골창, 개골창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ᄀᆡ골창, 개골창

출처 1865 흥부전 단:13ㄱ

용례 01

문헌 용례

깁흔 ᄇᆞ다 너른 시ᄂᆡ며 ᄀᆡ골창 잔돌박이를 훨훨 너머.

현대어 풀이

깊은 바다 넓은 시내며 개골창 잔돌박이를 훨훨 넘어.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174

용례 02

문헌 용례

개골창.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기골창, 개골창 용례 3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기골창, 개골창

출처 1920 조선일보 12월 6일 2면

용례 03

문헌 용례

두 사람이 셔로 기골창으로 갓치 빠지여셔 決투ᄒᆞᄂᆞᆫ 것을 본 리 형사가 별락갓치 달겨드러셔.

현대어 풀이

두 사람이 서로 개골창으로 같이 빠져서 결투하는 것을 본 이 형사가 벼락같이 달려들어.

출처 1929 동아일보 9월18일 5면

용례 04

문헌 용례

집행이로 쌍을 더듬거리면서 가다가 개골창에 곤두박질을 하든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29 동아일보 11월15일 3면

용례 05

문헌 용례

청년 군은 일제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손에 삽과 괭이와 비를 들고 나서서 개골창을 파 뒤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개골창에 관한 주석

‘개골창’은 ‘개고랑창’이 축약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개고랑’은 ‘개울’의 방언인데, ‘개울’의 방언에 ‘(기골)개골’도 있다.

개골창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박갑수 2021 ≪우리말의 어원과 그 문화: 우리말의 어원사전≫ 역락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개골창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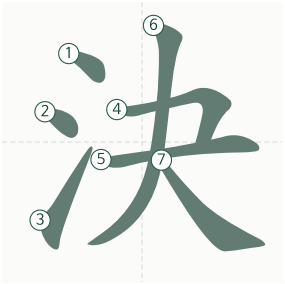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決

뜻·음 결단할 결

총 7획 · 부수 水





hanja.wordrow.kr/한자/決/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